

IBKS Spot Comment

유통/화장품

안지영, 김진영

02 6915-5675

jyahn@ibks.com

[코웨이]

품질 이슈와 관련된 오보에 주가 하락

What's New: 3가지 오보 확인

전일 뉴스 보도를 통해 코웨이의 얼음 정수기의 품질 이슈가 제기됨. 사실 확인 결과 3가지 오보 지적.

- 1) “정부가 벗겨질 수 있는 니켈 도금 증발기 제품을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라고 권고하였음”
 - **정정:** 정부는 그러한 권고를 한 바가 없음. CHPI-280L 제품의 결함이나 건강상 위해가 없지만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후 개발/판매되는 제품 재질을 변경하라고 권고한 것. 게다가 당사는 이미 2016년 9월 생산분부터 스테인레스 증발기를 적용하고 있음.
- 2) “우려가 제기되었던 니켈 도금 모델은 10만 대가 판매되었음. 코웨이 측은 스테인레스 부품으로 교체하고 있으나, 6만 5천 대는 아직 교체하지 못함”
 - **정정:** 뉴스는 2016년 9월 이전에 판매된 CHPI-280L 제품에 대해 스테인리스 부품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것은 사실과 다르며, 회사는 이와 같은 사항을 언론에 논의하거나 제공한 적이 없음.
- 3) “정부는 우려 수준이 낮더라도 지속적 사용시 니켈 과민군에서 피부염 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힘”
 - **정정:** 정부 조사 발표에서 CHPI-280L 모델은 제조/설계상 결함이 없고, 건강상 위해도 없다고 발표된 바 있음. 피부염에 우려는 상이한 구조의 타 모델에 대한 것.

코웨이 주가는 이와 같은 뉴스로 인해 미확인 내용에 대한 우려감으로 5.98%의 주가 하락을 보임. 그러나 확인 결과, 언급된 CHPI-280L은 이미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안전성 조사에서 제품 결함이 없음을 확인 받음. 또한 지난해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(3종)은 얼음생성과 필터 적용 방식에서 전혀 다른 제품임. 금번 사건은 단품불량 사례로 추정되며 코웨이는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할 예정.

Analysis & So What?: 5년간 3배의 기업가치 상승, 이제는 유지 관리도 중요

코웨이는 지난 5년 가까이 사모펀드인 최대주주의 전략 하에 굳건한 M/S 1위를 유지해 왔음. MBK파트너스가 인수하기 직전 연도인 2012년 개별기준 매출액 18,068억원, 영업이익 2,278억원(영업이익률 12.6%), 순이익 1,197억원에서 2015년 매출액 21,613억원, 영업이익 4,630억원(영업이익률 21.4%), 순이익 3,494억원까지 사업에 대한 핵심 역량을 강화하며 급진장을 시현해 왔음. 반면에 2016년 니켈 이슈에 대한 반영으로 매출액은 22,045억원, 영업이익 3,687억원(영업이익률 16.7%), 순이익 2,755억원으로 감소를 보임. MBK가 코웨이의 기업가치를 인수 이전 대비 3배 이상으로 상승시켜 온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함. 반면에 렌탈 산업 내 경쟁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속적인 고성장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 탐매니지먼트의 관리 전략 역시 압박이 더해지며 R&D, 마케팅, 영업조직간의 불균형의 우려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 경쟁구도 강해지는 가운데 독보적인 1위 사업자인 코웨이는 1)주요 사업간 균형 있는 전략과 2)소비재 브랜드 회사 측면에서 부정적 뉴스플로우에 대한 관리 능력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.